농산업 수출길 넓히고 우수품종 키운다

▲2026 농산업 해외실증·시장진출 포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산업 해외실증·시장진출 포럼' 성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10월 19일(월)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6 농산업 해외실증·시장진출 포럼(GATE Forum, Global Agri-Tech & Expansion Forum)'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농진원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현지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일본,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5개국 6개 협력기관에서 14명의 현지 전문가가 방한해 포럼 발표와 B2G 상담에 참여했다.

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양일 서기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정대희 부연구위원의 기조강연, 2027년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소개에 이어 국가별 발표로 진행됐다. 일본 아그리커넥트㈜,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자원 및 지역계획연구소(CAAS-IARRP), 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FAVRI), 카자흐스탄 국립과채류연구소(F&VRI), 인도네시아 국립보고르대학교(IPB)와 농업토지자원 표준시험센터(BRMP SDLP)가 각국의 농업정책과 농기자재 시장 수요, 인허가 제도를 소개했다.

모든 발표기관은 ▲수요가 증가하는 농기자재 품목 상위 5개 ▲외국 기업이 현지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공통 항목으로 제시해, 현지 기관만이 줄 수 있는 실무 정보를 기업에 전달했다.

포럼과 함께 국내 기업과 해외 협력기관 간 1:1 B2G 상담회도 진행됐다. 22개 기업이 참여해 총 4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현지 실증 가능성과 인허가 절차, 판로 확보 방안 등을 협력기관 담당자와 직접 논의하며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AI를 활용해 운영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농진원은 참가 신청 단계에서 기업이 제출한 관심 국가·품목·키워드를 AI로 분석해 기업과 협력기관을 매칭했다. 또한 AI가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판독·분석해 기업별 해외진출 수요와 애로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농진원은 이를 토대로 향후 수출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외 협력기관 관계자들은 포럼 이후 국내 농산업체 현장 방문, 김제에서 열리는 '2026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 참석 및 비즈니스 매칭, 농진원 주요 시설 견학 등 23일(금)까지 일정을 이어가며 국내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농진원 이석형 원장은 "AI로 분석한 상담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 수요에 맞는 실증·인허가·마케팅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백강' 국무총리상… 단감·감초는 장관상 수상

농진청,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 시상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화 '백강'이 2026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단감 '감풍'과 감초 '원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에서 열린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과 연계한 시상식에서 수상 품종을 육성한 연구자들이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국내 우수 품종을 발굴하고 신품종 개발을 장려해 종자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국화 '백강'은 국내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 흰색 대형 국화다. 사계절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농약 사용량을 약 30%, 겨울철 난방비를 약 20% 줄일 수 있다.

꽃잎이 단단하고 절화 수명이 길어 일본 품종이 주도해 온 흰색 대형 국화 시장에서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공영도매시장 거래액 점유율은 2019년 0.2%에서 2025년 24.1%로 상승했으며, 일본 수출도 이어지고 있다.

단감 '감풍'은 평균 과중이 약 400g에 달하는 대과종이다.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삭하며, 후숙하면 멜론과 같은 부드러운 맛을 낸다. 주요 생리장해 발생이 적고 꽃봉오리와 열매솎기 작업도 수월하다.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에 힘입어 재배면적이 119.1ha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단감 품종의 세대교체를 이끌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감초 '원감'은 국내 재배 적응성과 생산성을 갖춘 국내 최초 감초 품종이다. 이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2023년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됐으며, 현재 약 15ha에서 재배되고 있다. 의약품뿐 아니라 식품과 가공제품 원료로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농관원, 2026년산 공공비축벼 40만 톤 매입검사

전국 3000여 곳서 12월 말까지 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026년산 공공비축벼 40만 톤(쌀 기준)에 대한 매입검사에 들어간다.

농관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3000여 개 검사장에서 공공비축벼 매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각 도에 배정된 물량에 따라 진행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가루쌀벼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매입 물량은 포대벼 28만 톤과 산물벼 12만 톤이다. 포대벼는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는 지난 9월 7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65곳에서 민간 검사관이 검사하고 있다.

농관원은 원활한 검사를 위해 지난 9월 30일 전국 검사관 134명을 대상으로 매입 요령 등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별 사전 품위 점검도 실시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매입 현장에서 지게차와 운송차량 이동·작업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현장 사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현장에서 배우는 '스마트 해썹' 추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10월 14일(수)에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 해썹 워킹그룹 및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 해썹 도입을 준비하는 업체에 맞춤형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의 스마트 제조시설을 활용한 현장 실습으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스마트 해썹의 이해 ▲등록평가 기준 안내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의 시스템 구축사례 소개 등이 진행됐다.

교육에 이어 참석자들은 농산물가공창업관의 스마트 해썹 시설을 견학하고, 스마트 제조시설을 활용해 주요 공정과 시스템 운영 방법을 실습하며 스마트 해썹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썹인증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업체들이 스마트 해썹 등록 절차와 평가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마트 제조시설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이론과 현장 견학이 함께 이뤄져 스마트 해썹 도입을 망설이던 업체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해썹 워킹그룹 및 현장견학 실시

라정한 경인지원장은 "앞으로도 업체별 준비 수준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교육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해썹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H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

안성 농가서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NH농협생명이 지난 19일 경기 안성시 소재 마늘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영농작업을 지원하고 농업·농촌과의 지속적인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찬수 재무관리단장을 비롯한 임직원 25여 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마늘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밭에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농가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탰다.

NH농협생명 김찬수 재무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영농 시기에 맞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 02-582-4016 팩스 :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 02-582-4016
이 메 일 press@nonguptimes.com
홈페이지 www.nonguptimes.com
자 매 지 농업경제
발행인·편집인
한명덕 | 편집국장 김대경 | 인쇄인 이정자
구독신청·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80,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